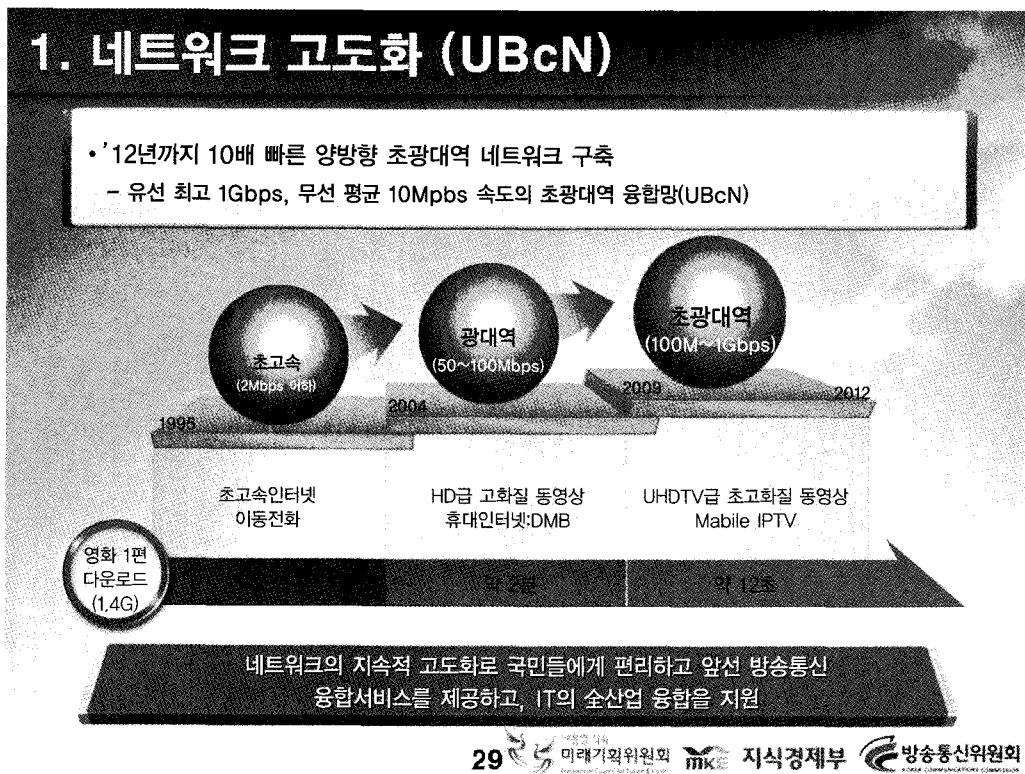


미래 인터넷

더욱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이 미래전략의 키워드이다. 네트워크 고도화로서 2012년까지 10배 빠른 양방향 초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유선 최고 1Gbps, 무선 평균 10Mbps 속도의 초광대역 융합망(UBcN)이다.

1995년에 초고속(2Mbps이하)시기에 초고속 인터넷

이동전화기, 2004년부터 광대역(50~100Mbps)시기에 HD급 고화질 동영상 휴대인터넷 DMB가, 금년부터 초광대역(100M~1Gbps)시기로서 UHDTV급 초고화질 동영상, 모바일IPTV를 들 수 있다. 1.4G인 영화 1편 다운로드 시간은 초고속시기에 약 2시간, 광대역시기에 약 2분, 초광대역시기에 약 12초가 소요될 것이다.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고도화로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앞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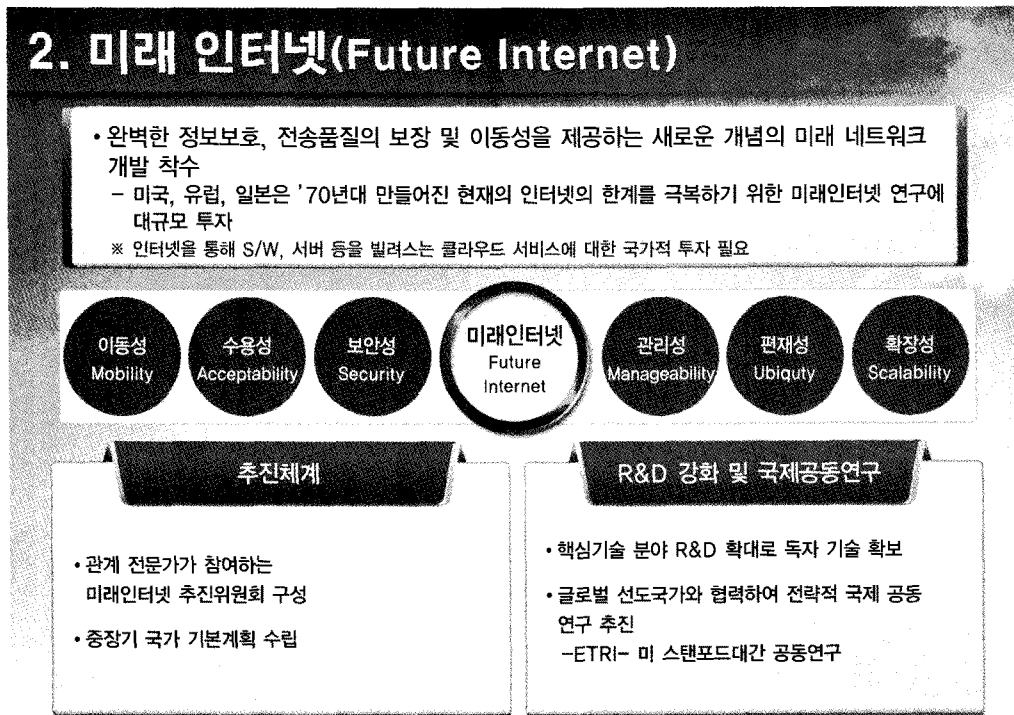
최근 전 세계 악성코드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정보보호 위협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악성코드는 2002년 2만개 정도에서 지난해에는 165만개로 늘어났다. 전체 보호 대상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은 낮은 보안의식과 투자 부족으로 심각한 침해 위협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

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IT의 전산업 융합을 지원할 것이다.

초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 인터넷 개발에 착수한다. 완벽한 정보보호, 전송 품질의 보장 및 이동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 네트워크 개발인 것이다. 미래인터넷은 이동성, 수용성, 보안성과 관리성, 편재성, 확장성이 그 특징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경쟁국도 1970년대 만들어진 현재의 인터넷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인터넷 연구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서버 등을 빌려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차세대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고 국가 차원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 인터넷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 인터넷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장기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R&D와 국제 공동 연구를 강화해 핵심 기술 분야 R&D 확대로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선도 국가와의 협력하여 전략적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에트리와 미국 스탠포드대 간 공동연구가 사례이다.

정보보호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인터넷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PC가 1999년에 1,250만대에서 2008년 3,130만대로 증가율이 150%이다. 이용자수는 1999년에 940만명에서 2008년 3,530만명으로 증가율이 275%이다. 전자상거래는 1999년 9.2조원에서 2008년 630조원으로 증가율이 6,700%를 상회한다.

최근 전 세계 악성코드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정보보호 위협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악성코드는 2002년 2만개 정도에서 지난해에는 165만개로 늘어났다. 전체 보호 대상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은 낮은 보안의식과 투자 부족으로 심각한 침해 위협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침해대응 역량을 보면, 정부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

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 기업에서는 전체 45%가 정보 보호 투자가 전무하고, 개인은 백신 자동 업데이트 미실시가 35%이다.

정보보호 핵심과제로서 대응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의 전담 인력 및 첨단 장비를 대폭 보강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인력과 장비 보강으로 악성코드 분석률을 10%에서 80%로, 홈페이지 점검도 15만개에서 180만개로 확대한다. 또 보안장비 설치시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고 학교 정보보호 교육 확대와 일기예보식 보안경보 체계도 마련해 정보 보호를 생활화한다.

미래 위협에 대비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인터넷 침해 예방과 대응기술의 산학연 공동 개발 및 제품화 지원, 사이버 공격 방어 테스트베드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한다. IPTV, VoIP,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의 보완대책을 강화한다. 완벽한 정보보호가 뒷받침되어야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한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이다.

